

# 설명자료

<b>배포일시</b>	2019. 9. 5.(목) 17:00 (총 2매)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
<b>담당부서</b>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<b>담당자</b>	과장 허복행 예보관 박찬귀
		<b>전화번호</b>	042-863-0367

**제13호 태풍 '링링(LINGLING)' 바람 더 강해져**

- 태풍 고수온해역(29도 이상)에 오래 머물면서 세력 강해짐
- 빠른 속도로 서해상 경유, 강한 세력 유지
  - 6일 밤~8일 오전 제주도, 남해안, 서쪽지방 중심 매우 강한 비바람 주의

- (현황) 제13호 태풍 '링링(LINGLING)'은 5일(목) 15시 현재 강도 매우 강(중심기압 940hPa, 최대풍속 시속 169km(초속 47m)), 크기는 중형(강풍반경 370km)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.
- (태풍 이동속도 감소) 현재 태풍 상부(고도 5km 이상)에서는 태풍의 왼쪽 하단부로 북서풍이 불어들며 회전력을 강화시켜 전반적인 ①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, ②태풍의 북쪽에 위치한 건조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저지하면서 태풍의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.
- (현재 태풍 최성기) 태풍은 발생이후 현재 고수온해역(29도 이상)에 머물면서 세력이 강해진 상태입니다. 이후 제주도남쪽먼바다까지 북상하는 6일(금) 밤 경,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강풍반경<sup>1)</sup>이 약 420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1) 강풍반경: 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영역

- (강한 태풍 영향) 태풍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는 6일 밤부터 대기 상층(고도 10km 부근)의 강한 남서풍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기 때문에 7일(토) 경, ①강한 세력을 유지한 상태로 서해상을 통과하고, ②태풍의 가장 위험한 영역인 우측반원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- 때문에 6~7일은 제주도와 남해안,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최대순간풍속 시속 144~180km(초속 40~50m)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
  - 특히 도서지방에는 시속 200km(초속 55m)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며, 그 밖의 내륙지방에서도 시속 90~126km(초속 25~35m)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
  - 또한, 해상에서는 5일 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6~8일에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최대 1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.
- (주의 사항) 매우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공사장/건물의 시설물 파손 및 2차 피해, 수확기 농작물 피해 등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며,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파도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, 해안가 안전사고 및 양식장 피해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(변동성) 태풍의 이동속도가 더욱 느려질 경우, 북쪽에 위치한 상층(고도 10km 부근)의 강한 서풍을 따라 태풍이 북동진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태풍이 조금 더 북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- 따라서 7일 저녁 경, 태풍의 예상 상륙지점이 황해도~경기북부서해안 범위에서 옹진반도 부근으로 다소 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.
  - 그러나, 태풍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니, 최신의 태풍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